

가금농장 방역·소독시설 보완해야

3310호 중 387호서 방역 미흡사항 719건

전실 관리·울타리 미흡이 주요 사례로

전실 관리 신경 써야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철을 대비해 전국 닭·오리 등 가금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5월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점검반은 전국 가금 농장 3310호를 점검(6.17일 기준, 진행률 58%)했으며, 387호 농장에서 차단 방역 미흡 사항 719건을 확인했다.

주요 방역 미흡 사례로는 전실 관리 미흡(142건)이 가장 많았고, 울타리

(114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113건), 방역실(85건), 차량 소독시설(64건) 순으로 가금농장 방역·소독시설의 미흡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특히 미흡 사항이 가장 많은 전실은 농장 종사자가 축사로 들어가기 전 신발을 갈아신고, 손을 씻거나 소독하는 장소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축사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시설이다. 전실 관리가 미흡할 경우 바이러스가 농장 종사자의 손과 신발에 오염된 채 축사 안으로 들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실을 가축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의 공간으로 설치하고 오염구역(전실 앞쪽)과 청결구역(전실 뒷쪽)을 철저히 구분해야 하며, 신발 소독조와 축사 전용 신발을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축종별로는 육계, 오리, 산란계 순으로 방역 미흡 사항이 많이 확인됐다. 오리, 산란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하는 축종으로 차단 방역 강화와 소독시설 보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농식품부는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계획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미흡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행 기간(최대 2개월)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7월 중순 이후에는 방역 미흡 사항 보완 여부에 대한 재점검과 가금 계열화 사업자 및 방역관

리책임자를 통한 2차 점검을 추진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특히 시정명령을 받은 농가에서 이행 기간 내에 미흡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시기(10월~2월) 전에 방역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올해 상반기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으로 올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금 농가에서 10월 전까지 미흡한 방역 및 소독시설에 대한 보완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만성예코르2단지 입주 주부모니터가 책임진다

전개공, 입주전 4단계 품질검사 실시

도내 유일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공동주택 입주전 4단계 품질검사(외부전문가, 주부모니터, 지자체, 입주자)'로 도내 신규 공동주택의 입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27일부터 오는 7월 5일까지 7일간 전주 만성지구에 건설중인 전주만성예코르 2단지(아파트(총830세대)에 대한 주부모니터 품질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주부모니터제도는 전북도에서 공사가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는 제도로 도내 거주 주부들로 구성된 주부모니터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 전 꼼꼼한 주부의 눈으로 직접 세대내부 마감상태 등을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그간 전북개발공사의 공동주택 품질향상에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또한, 공사는 주부모니터 품질점검 외에도 입주전 여러단계의 품질점검을 통해 고품질의 공동주택 건설 및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전주만성예코르2단지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건설 및 공급하는 10년공공임대주택으로 총 880세대, 전용면적 59㎡ 단임평형으로 공급했으며, 현재 공정률은 97%로 올해 9월 준공해 10월 입주를 목표로 건설중이다. /김윤상 기자

“디지털 트윈 적극 도입 주택공급 정책 원활하게”

공감정보산업 도약 대토론회서 ‘한목소리’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240만호라는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려면 사전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디지털트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더 나아가 주택정책의 실패를 가능할 도구가 없었던 만큼 디지털트윈을 제도에 안착시키고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상훈·강준현 의원·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주택학회·한국주거환경학회·LX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후원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감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문가들은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주택 공급 단계별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제를 맡은 임미화 전주대 교수는 “주택도시정책 플랫폼으로서 디지털트윈은 주택정책 수립, 사업 계획, 수요자 의사결정 지원,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주택시장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활용가치가 무궁무진하다”면서 “다만 기술 개발로 끝나서는 안 되고 주거환경 서비스 개발이 뒤따라야 하며, 산·학·연·정의 워킹그룹이 단계별 정책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자로 참여한 조윤희 우이건설 상무도 “원자재값 급등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국내 프롭테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산·학·연·정의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신기술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면 시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디지털트윈을 주택·도시정책에 활용하려면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데이터의 품질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준형 명지대 교수는 “그동안 정부의 주택정책 규제가 철폐·혁파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이 수립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이어 “민간이 다양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LX공사와 국토교통부가 고민해 달라”고 제언했다. 이준원 광운대 교수도 “디지털트윈을 활용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 실시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이 노력해줄지 바란다”고 힘을 실었다.

박소아 (주)바이브 부사장은 “세종·부산의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 사업, 대구·시흥의 스마트시티 실증도시 사업 등과 같이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플랫폼”이라고 기대했다.

“풀”이라면 “디지털트윈·메타버스를 활용해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해 나갈다면 새 정부의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디지털트윈·메타버스는 현실세계를 가상으로 구현하고 예상되는 각종 도시·국토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찾아내는 플랫폼”이라면 “이를 위해 공간정보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고 프롭테크 등 민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며 민간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규제도 과감히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은 “디지털트윈·메타버스를 활용해 주택 공급 정책을 제시한다면 공간정보 산업 발전은 물론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의 의사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과학적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서부산림청, 재해 예방

산림사업장 사전정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 재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날 22일부터 17일 동안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장에 대한 사전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 정비는 서부청 관내 5개 국유림관리소(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에서 최근 3년간 실행한 조림·숲가꾸기 사업장이 대상이며, 임산물 운반로 토사유출 피해예방조치 및 산물처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피해 우려지에 대해서는 응급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과거 수해발생지역의 하천과 교량 주변, 계곡 및 산사태 위험지 주변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수시 반복 점검을 통해 피해 발생요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철저한 사전정비로 산림연접 지역주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봄맞이 더블 이벤트 당첨자 경품 증정

전북은행, 129명 추첨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지난 23일 전북은행 봄맞이 3층에서 2022 봄맞이 더블 이벤트 당첨자에 대한 경품 증정식을 실시했다. 고객이 원하는 경품에 응모할 수 있도록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는 콘셉트로 진행된 이벤트에서는 이벤트 기간 동안 일정금액 이상 JB다 이력예금에 가입하고 경품에 응모한 고객 중 129명을 추첨해 경품을 지급했다.

홀 케어 의료기 1명, 공기청정기 3명, 스마트워치 5명, 백화점 5만원 상품권 20명, 1만원 해피폰 100명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했으며, 이번

트 기간 선착순 예금가입고객 1000명에게는 감사의 의미로 커피 쿠폰을 전달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예금 가입과 더불어 전북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푸짐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생활에 작은 활력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상품 및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해 따뜻한 금융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기후변화·탄소중립·식량안보 대응

농진청, 농식품분야 8개 국립연구기관 등과 상호협업체계 구축

농림수산식품 분야 국립연구기관이 국제적 난제인 기후변화, 탄소중립 및 식량안보와 지역 균형발전 등 국내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호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지난 24일 국립농업과학원 푸디토리움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 8개 국립연구기관(이하 국립연) 기관장과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연 간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각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혁신시책을 공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연은 협약에 따라 각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융복합 기술 성과를

창출해 국가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전 먹거리 공급, 활기찬 농산어촌 실현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과학기술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협약 분야는 △우수 혁신사례 공유 △신규 협력사업 발굴·기획 및 이행 △연구직 공무원의 역량향상 및 인적 교류 △연구개발 시설, 장비 공동 활용과 확대 등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국립연구기관은 지난해 연구개발의 공공성, 혁신성, 개방성 강화를 골자로 한 ‘국립연구기관 R&D 혁신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국립연은 정부 임무형 연구개발사업의 자체 수행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 연구 조직·인력의 유연화, 개방형 연구생태계 구

축 등 기관별 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특히 개방형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해 산·학·관·연 공동 연구사업과 융복합 다부처 사업 발굴 기획 등 부처 간 협력 강화를 혁신과제로 설정했다. 지난 2020년부터는 각 기관 간 원만한 업무 협력을 위해 ‘연구개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서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융복합 연구개발 성과의 파급력은 매우 크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안전 먹거리 공급, 활기찬 농산어촌 실현 등 정부 국정과제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ESG전략 공유·성과 확대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준진)는 지난 24일 서울 a센터에서 2022년 ESG경영 CEO자문위원회를 열어 공사의 ESG 전략을 공유하고 성과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김윤상 기자

농생명·바이오 소재 기업지원 설명회

식품연구원서 오늘 개최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형희, 이하 ‘식품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전라북도의 농생명·바이오 소재 산업화 기술축진을 위해 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이에 대한 기업지원 설명회를 27일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의 하나로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농생명 바이오소재 산업화 기술축진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생명 바이오 산업 관련 기업지원을 수행 예정이다.

국비 60억원과 전북도, 순창국, 익산시, 고창군의 지자체가 28억 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주관하며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한국식품산업연구소(재)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가 공동으로 수행 예정이다.

사업을 수행하게 된 ‘농생명 바이오 소재 산업화 기술축진 지원사업’에 따르면 지원사업을 통해 전북 농생명 바이오 소재의 산업화를 위한 신뢰성·안전성 시험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및 기업지원,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하며, 지역 내 기업 지원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기업 지원에 대한 상세한 지원 내용을 공유하고 기업체의 수요 등을 조사해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규고용을 창출하며 기술축진 등을 통한 수혜기업 매출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전북 농생명·바이오 산업 육성을 견인하기 위한 고도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진행한다. 지원사업단은 첫걸음으로 지원기업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지원 설명회를 27일 오후 2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개최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기업지원에 관한 상세한 지원 내용을 공유하고 기업체의 수요 등을 조사해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건설현장 노무관리·하도급법 설명회

건설현장 노무관리 실무 등 강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임근홍)는 지난 24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4층 대강당에서 2022년도 건설현장 노무관리 및 하도급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내 전문건설업 대표 및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노무법인 명률의 최정일 노무사가 건설현장 노무관리 중 노조법의 이행 및 건설노조 교섭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건설업 현장 노무관리 실무, 건설업 산재고용보험 확정정산 대응 등의 내용을 강의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용역하도급개편과 이재국 과장이 하도급법



전반에 관한 사항과 정책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윤상 기자